

2014
11
2nd

COVERSTORY

요람에서 대학까지

전문가 인터뷰
백종환 선생님에게 교육이란?

수험생을 위한 알짜정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학교에 들어왔다!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에 낀
나는야 2X세대

탐방기사
지하철로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장

무상보육 무상교육
괜찮아! 무상이야

아빠의 청춘

한국유학
한국에서 유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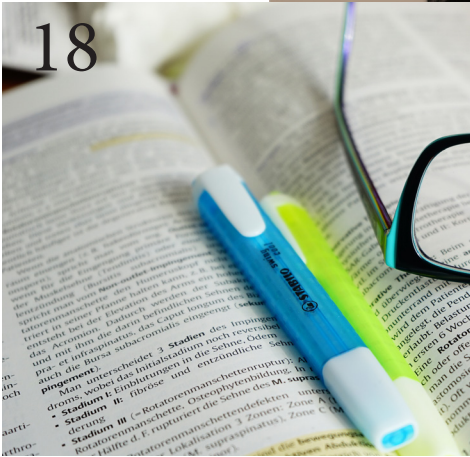
Contents

November 2nd 2014



Da Capo

23



18



20

04 [전문가인터뷰] 교육전문가 백종환 선생님에게 교육이란?

06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학교에 들어왔다!

10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에 낀 나는야 2X세대

11 [탐방기사] 지하철로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장

14 관촬아! 무상이야

16 아빠의 청춘

18 한국에서 유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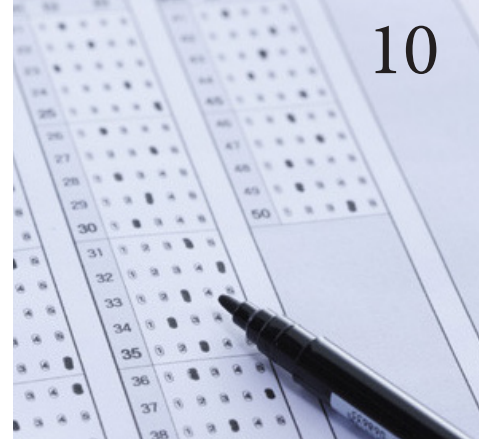
20 [레저] 남이섬에서 초겨울의 고즈넉함을 느껴보자

22 [리빙]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

23 [연예] 연예계 소식

26 [IT] 조너선 아이브

27 [경제] 시장트렌드와 대세론



10

대표 :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 정원훈

기자 : 앤서니 김, 남상열, 전성민, 김소연, 정주형, 이희재

편집 : 김주은

필진 : 장대웅, 유광중, 이상규, 김동엽, 박성준, 문성호, Jay Lee, 윤명진, 김성중, 정현욱, 정상균, 임근태, 배기성

등록번호 : 서울 아02673

등록일 : 2013년 5월 29일

발행처 : (주)텐스페이스

전화 : 070-7168-1111

팩스 : 02-2168-9887

홈페이지 : www.koreanjournal.net

大學(대학)에서 搖籃(요람)까지

이번 저희 코리언저널의 다섯 번째 웹진의 테마는 ‘교육’입니다. 편집회의를 진행할 때, 광범위한 주제이기에 내 부적으로 수많은 주제와 커버스토리 제목 등이 언급되었고 그만큼 많은 고민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티브를 삼아 ‘요람에서 대학까지’로 잡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영어로 ‘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W. Churchill)이 유명한 경제학자인 베버리지(W. Beveridge)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보고서에서 유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와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신념을 구호로 만든 것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고, 사람모두의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었죠.

저희가 커버스토리 제목으로 ‘요람에서 대학까지’로 잡은 이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복지정책’을 표현한 것이었다면, 저희의 커버스토리 제목은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기사는 ‘교육전문가 백종환 선생님’의 인터뷰로 시작했는데요. 요즘 대입시즌이라는 점도 있지만,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관한 시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입학시즌과 맞물려 1년 전 입시에 찌들고 대학생활을 맛 본 선배들의 이야기를 실어서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 학력고사라는 시기와 수능시험을 동시에 경험한 남상열 기자가 그 이색 경험을 공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지하철로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장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재 논쟁이 되는 무상보육에 관한 이슈를 짚어보는 기사를 언급했고, 뒤이어 ‘아빠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조기 유학 붐으로 생겨난 기러기아빠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버스토리의 보너스 기사로 저희 코리언저널이 영문판과 중문판을 준비 중이기에 ‘한국에서 유학하기’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이 그 나라 현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주는 기사를 넣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온라인 기사 중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유익한 기사를 그 뒤에 소개했는데요. 레저 코너에서는 남이섬 여행을 위한 기사를, 리빙 코너에서는 육아들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을 안내해 드렸고, 연예 코너에서는 화장품 모델로 데뷔한 이국주 등의 연세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IT 코너에서는 ‘조너선 아이브’에 대한 서평을, 경제 코너에서는 시장트렌드와 대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뽑아보았습니다.

벌써 5번째 테마 웹진입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테마 웹진이 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전문가 백종환선생님에게 교육이란...

오전 11시. 처음으로 방문 인터뷰가 아닌 직접 오신다고 했을 때, 여유 있게 아침을 보내며 인터뷰 준비를 하였다. 도착하신 백선생님께서서는 첫 인터뷰라 떨린다며 엄살을 부리신다. 백선생님의 인터뷰가 2014년 수학능력평가시험 직후이고 논술시험이 계속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 첫 질문은 수능에 관한 질문이었다.글 정원훈 편집국장

Q 최근 수능을 치른 후 논술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촌평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2014년 수학능력평가시험은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만큼 논술 시험에 대한 비중은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네요. 논술시험에 대한 결실율도 줄었으며, 이는 실질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술시험은 1회성의 성격이 강하여 학부모나 수험생을 암흑 속에 헤매게 만들고 있죠.”

Q 그렇다면, 논술시험을 대비하는 요령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 최근의 논술시험의 경향은 ‘정답이 있는 논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비 요령은 ‘논제에 충실해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여 정확한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수험생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과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시험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올해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2학년도보다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정시 지원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으로 비슷한 점수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점자도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하향 안전 지원 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월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정시 지원까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남아 있는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논술이나 면접고사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나 예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백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제에 충실하며, 요구사항을 각각 쪼개어 답안에 반영하는 훈련을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이다.

Q 2014 수능에 관한 질문을 하였지만, 수능이 대학교 입학시험이고, 대학입시의 방법이 이전 보다 많이 바뀌었기에 그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

“ 1990년대 초까지 학력고사로 대학에 입학했죠. 하지만, 그 이후 수학능력평가시험으로 바뀌었고, 그 시험은 2000년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시와 수시로 나누는데요. 정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하는 입학시험이며, 수시는 정시 전(前)에 원서를 내서 보는 것입니다. 수시의 본래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는 본래 미국의 제도를 본따 만든 건데요. 수시를 영어로는 Early라고 하는데, 정시 전에 보기에 그 말이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 같습니다. 이 수시전형은 논술전형, 학생부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되고, 학생부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세분화 됩니다.

여기서 학생부전형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말합니다. 이는 다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구분되는 데요. 교과전형은 MB정부시절의 입학사정관제도의 학업우수자전형 즉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등의 성적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예를 들어볼까요? 1등급은 전체 응시자의 4%, 2등급은 11%~12%, 3등급은 29%입니다. 예를 들어 전교학생이 300명이라면, 30명이 1반이라고 할 때, 과목별 반에서 1등, 전교등수 12등 정도가 1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은 무척 문이 좁은 교과전형보다 약간은 넓습니다. 최상위권대학을 갈 때, 수시전형이 1등급은 당연한 거겠지만, 종합전형은 2등급 내에도 가능하니까요. 그 이유는 비교과과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동봉진’이라 부르는데,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성적 평가를 거칩니다. 비교과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학생회 등의 활동이 자율 활동이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프로그램 이수 등 성향검사와 강연 그리고 진로 탐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로활동입니다.

이러한 종합전형은 이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가 필수이므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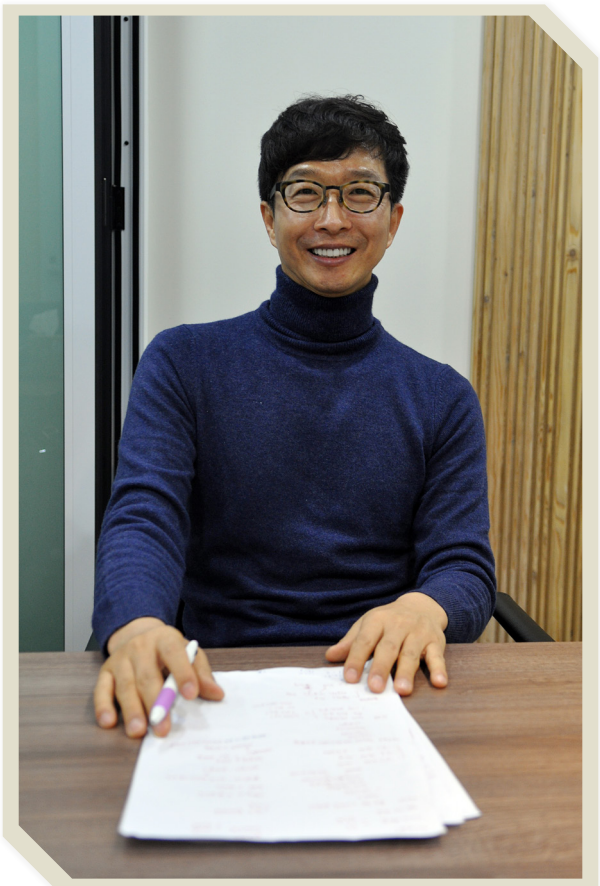
Q 종합전형에 비교과 과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했다면, 진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지, 만약 특허출원이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 특허출원이 진로활동으로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담당교사의 평가가 들어가지 못하니깐요. 하지만, 뜻 맞는 친구들 2~3명이 자율동아리로 만든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기조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 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꿈은 ‘비전’이며 끼는 ‘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학교에서 허락한 동아리만 있었다면, 현재는 소수의 인원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율동아리가 용인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 이는 진로적성교육의 강화와 관련되는데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 시행 및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등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전문대의 수업연한 규제 완화(1년제~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12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과학 과목을 10 - 14단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과목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서 교육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Q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중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 선택기준은 먼저 첫째, 학생부교과기준을 먼저 살피고, 둘째, 종합전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대의 경우 학생부전형이 60%, 40%가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호하고, 중위권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호하기에 여기에 맞춰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Q 수능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하다가 백선생님이 ‘대치동 백쌤’이라 불리는 이유와 그가 교육업계로 자리 잡게 된 계기 등이 궁금했다.

“ 제가 ‘대치동 백쌤’으로 불리는 이유는 도곡동과 대치동 등에서 진학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주로 했는데, 교육업계로 들어오면서 저의 노력과 진정성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감되었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백종환 선생님은 교육전문가이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조금은 다채로웠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한 후 첫 직장은 증권사였는데, 이때 금융과 경영에 대한 현장 감각을 익혔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여러 실질적 조언을 해주다가 입소문이 나 ‘진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세웠다.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서 경기대 교육대학원 청소년 지도 상담 교육 석사 과정을 밟은 후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연구」라는 논문을 쓰면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론을 펼쳤다. 이후 청소년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과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했다.

Q 백선생님이 살아오신 길들을 들으면서, 취업준비생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을 물어봤다.

“ 직업보다는 직업인이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라면, 금융업, 전산업 등 다양하죠. 그 안에서 A증 권사를 갈지, B증권사를 갈지, C은행을 갈지 고민하겠죠.

하지만, 직업인이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 입다. 직업인은 직장을 배경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며, 여기에 맞게 살게 사는 것이죠.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증권사에 있다가 다시 청소년 컨설팅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를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반면교사로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교육을 제 자신이 받는 거 같아요.”

Q 현재 백선생님은 한국 인성 소통 협회 이사이기에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까지 물어보았다.

“ 인성교육이란 나와 남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KEY)인 거 같아요. 나 혼자만 잘 난 게 아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으로 만드는 거죠. 가족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는 문제 중심이지만, 인성 교육은 ‘어떻게’라는 것을 화두로 붙잡고 해결중심이기에 미래지향적이며, 비전을 만드는 방향제시의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들이 파행적인 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부족이라는 거죠.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은 정부가 아니라, 가정 내의 인성교육이 먼저 일 거 같습니다. 인성은 성품이라 할 수 있죠. 부모님들이 먼저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요즘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받는다면, 되지 않을까요?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바로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온다고 봅니다.”

Q 이제 질문을 좀 더 넓혀 혁신학교와 조기학교에 대해 백선생님의 개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혁신학교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봐요. 교육의 본성이 천천히 변화한다는 점인데요. 충대를 메고 나아가는 선구자들이 있어야 발전하고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대해 만족하는데요. 입시제도는 사실 성장단계의 필수요소인 통과의례라고 봅니다. 웬나가 사람으로 환생할 때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먹었던 것도 이러한 통과의례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피해가려다가 보니 편법 등이 등장하고 불법이 등장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또한 현행 입시제도는 좋아졌다고 봐요. 대학입시 특히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기 주도 학습 계획, 다양한 경험, 배려, 나눔, 갈등관리(인성) 등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채우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균형 있는 자아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과전형에 국영수 그리고, 사회, 과학을 꼭 공부해야 한다는 논쟁은 ‘닭과 달걀의 딜레마’인 거 같아요. 건강한 정상인을 목표로 한다면, 기능과 콘텐츠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를 듣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정교화한 교수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싫다면 대안학교 등을 선택하면 되고요.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라면 투자대비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녀의 전반적인 학습태도, 진로, 비전, 삶에 대한 자세, 목표를 먼저 세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태도와 자기관리만 제대로 배운다면 조기유학보다 더 큰 이익을 볼 것은 자명하니까요.”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이 자율화되고 학급당 인원이 25명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이다. 일반학교가 대부분 일정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과는 달리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이 자율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 33개의 초중고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 학교, 무지개 학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Q 백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은 무엇이냐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꽃의 싹을 띄우는 것입니다. 싹을 띄우는 거라 말한 이유는 그 싹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성껏 키우는 싹은 어떤 꽃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험생들을 위한 알짜 정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다”

2015년 수능이 끝났다. 이제 성적 발표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포함해 12년 동안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꿀맛 같은 휴식의 연속이다. 그렇다고 맘 편히 쉴 수만은 없는 터. 이미 수능을 본 수험생 혹은 수능을 앞둔 예비 수험생들에게 코리안저널에서만 알려드리는 알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대학의 새내기로 부푼 꿈을 품고 있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 남상열 기자



정재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학년



임수진 포항공과대학교 단일계열 1학년



송현서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 :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기계항공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의 장래희망이 CEO 창업을 하거나 전문 경영인이 되는 두 가지 길인데요.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계공학에서 창업을 많이 하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은 후에 MBA과정을 통해서 전문경영인이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창업과 취업을 둘 다 잡기 위해서 기계항공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 : 저는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의 단일 계열에 재학 중인 임수진입니다.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과학고에서는 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 과학 분야에서 심화학습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은 시야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일계열로 입학하면 1학년 동안 대학 생활을 경험한 후 2학년이 되어 세부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송 : 제 이름은 송현서 이고요 학교는 경희대학교이고 학과는 한의예과에 재학중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Q 모교의 자랑거리를 말씀해 주세요.

정 : 솔직히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처럼 축제가 재미없고 행사도 없어서 캠퍼스 생활 자체는 재미가 없습니다. 서울대만의 넓은 캠퍼스도 오히려 단점이라 생각하구요. 다만 학교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활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랑거리라 함은 아무래도 졸업 후 취직이나 고시, 타 대학원 진학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이죠

임 : 일단 저희는 소수 정예라 그만큼 구성원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또 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문화행사나 봉사활동 등 지방에 위치한 단점을 극복하기도 하구요, 매년 포카전(POSTECH - KAIST)이라고 해서 해킹, 인공지능, 게임 등의 과학경기와 축구 등의 운동경기 및 동아리 교류 등이 열립니다. 일종의 연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송 : 매년 슈퍼스타가 저희 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고요. 그 외에도 백상예술제 등의 시상식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오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가 굉장히 예뻐서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경희랜드' 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학과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정 : 일단 취업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이죠. 그리고 특히 기계공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철판을 직접 짤라서 로봇을 만들어 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 : POSTECH에는 산업경영공학, 수학, 물리학 등 11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단일계열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무학과인 상태이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다양한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현재는 전공으로 산업경영공학을 선택할 계획인데, 산업경영공학은 생산공학·

인간공학·OR·응용통계·품질공학 등의 분야와 함께 정보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SCM, ERP, CRM, 데이터마ining, E-비즈니스, E-매뉴팩처링 등의 이름으로 전 산업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송 : 저희 학과를 나오면 우선 취업걱정과 학점걱정, 군대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한의학이 물론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양의 학보다 어찌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의학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한의학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저희 학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수험생 시절에 나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면?

정 : 일단 고1,2학년 때는 성실하게 기본적인 것에 최선을 다 한 거 같아요. 점수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실제로 점수가 좋지 않았죠. 예를 들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보다는 지문 잘 읽고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히 해석하는 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3년을 통틀어서는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3때는 다 중요하지만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에게는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임 : 과학 고등학교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학습을 위주로 하고 수능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아침 여섯시 반부터 밤 열두시까지 뻘뻘한 일정이 이어지죠. 고등학교 생활 동안 충분한 숙면과 꼼꼼한 노트 정리가 이러한 과정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 같습니다.

송 :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가는 버스 시간, 학교로 오는 버스시간 등등 모두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기에 항상 그날 배웠던 것들을 복습한다든지 수학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등 자투리 시간조차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공부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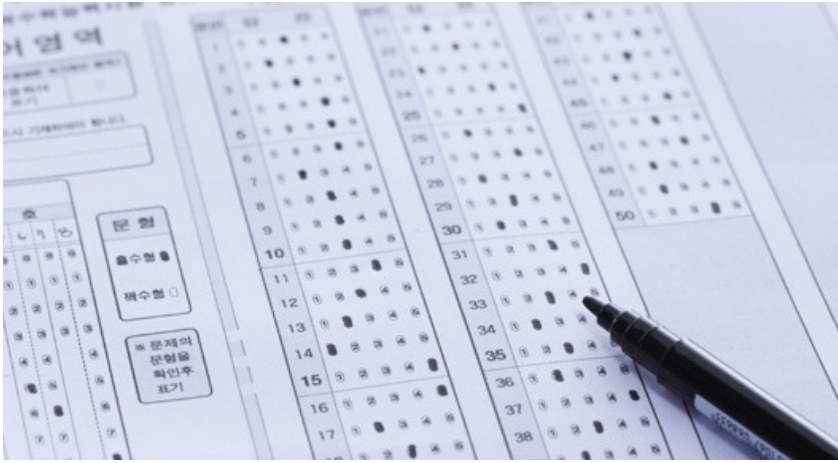
Q 앞으로 모교의 해당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정 : 물리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수능에서 물리 선택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물리가 1학년 때부터 필수전공이기 때문에 동기들 중에 물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공부 만큼은 많이 하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 :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POSTECH을 강추합니다. POSTECH은 전원을 수시전형으로만 선발하는데, 과학고 뿐만 아니라 일반고 출신도 많거든요.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과학에 대한 내신 성적 관리 및 관련된 활동을 많이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송 : 저희 학과를 선택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보내던 것과는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유익한 대학 생활 하세요.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에 끼나는야 2X세대

보통 X세대를 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N세대와는 어감부터 다른 것이 디지털의 기술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일컬어 네트세대. 즉, N세대라고 표현을 하니깐요. 작년 이맘때 쯤이었죠? X세대라고 불린 90년대 대학생들의 청춘을 그린 ‘응답하라 1994’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카세트테이프, 피아노 전화기, 매직아이 등 당시를 대표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X세대는 열광했고 그때를 추억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물수능이네 뭐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수능시험이었는데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앉아 있노라니 갑자기 옛날 수험생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대학입학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번씩 경험했던 기구한 운명... 그런 나를 두고 2X세대라고 부릅니다. 글 남상열 기자

‘재수 아닌 재수를 택하다.’

지금은 대학이 참 많습니다. 집 안 형편이 되고,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학가 기관 누워서 떡먹는 것보다 쉽죠. 하지만 저희 X세대들은 어디 그랬나요? 수시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복수지원조차 없었으니까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성적에 맞는 학교와 학과를 맞춰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 했던 친구들은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최소한 나를 포함한 내 친구들은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대학에 진학을 했으니까요. 아직도 고3 때 담임선생님과 의 협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을 보며 한숨을 쉬는 선생님, 떨어져도 좋으니 무조건 IN서울로 보내달라는 나... 어찌 보면 프로야구 선수 FA협상보다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기나긴 협상 끝에 저는 한 발 물러나 공주대학교를 쓰게 되었고, 학과는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산림자원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박찬호의 자랑스러운 후배로 다녀보려 했지만 결국 나는 재수를 택했습니다.

‘형 몰래 입고 나온 가족점퍼’

때는 1991년 가을. 내 고장 부천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요제를 개최하였고, 그 가요제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예선과 결선이 있는 공신력 있는 대회였지요. 예선전에서는 발라드에 댄스를 접목시킨 콘셉트로 본선에 오르게 되었고, 본선은 이현우의 ‘꿈’을 들고 올랐습니다. 나름 이현우와 비슷하게 보여야 한다며 형이 아끼고 아끼는 가족점퍼를 몰래 입고 나와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날 심사위원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대매너하며 넘치는 끼 하며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가면 분명 성공할 거라는 말과 함께 인기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심사위원의 한마디가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95학번 이수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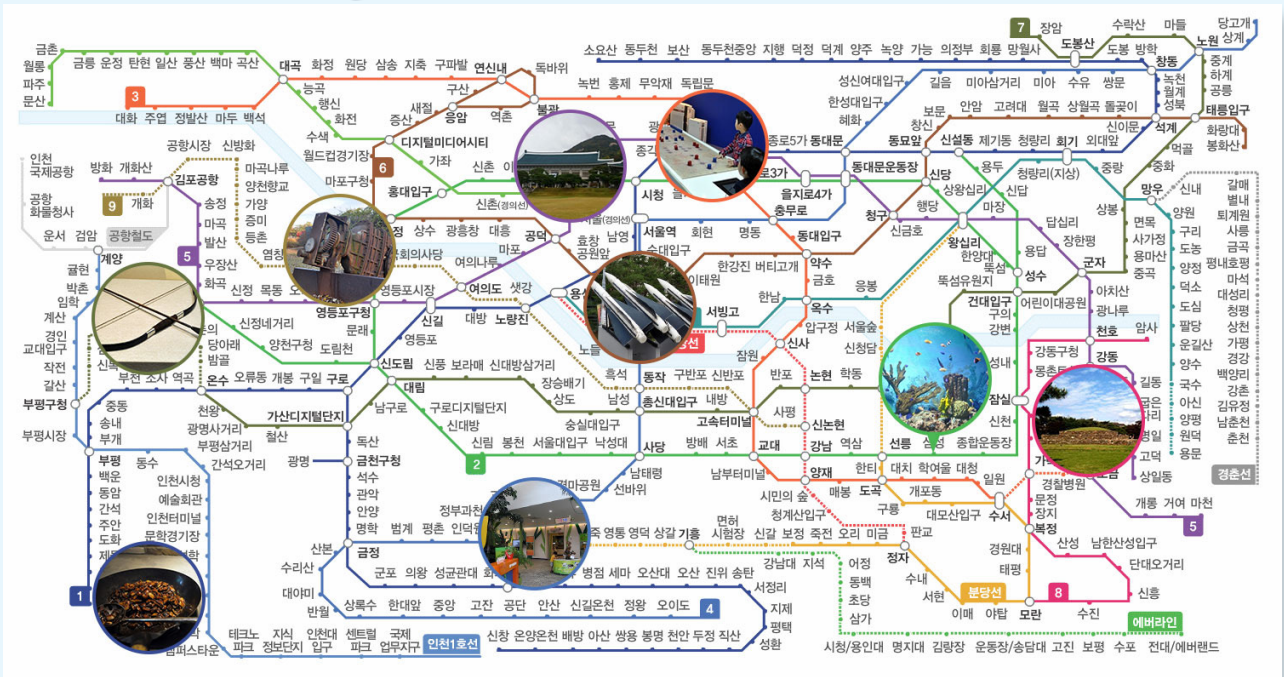
네! 그 가요제가 있었던 날부터 저는 줄곧 레크리에이션 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합격하고도 포기를 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구요. 재수 아닌 재수를 하고 서일대학 레크리에이션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국에서 날고 깃다는 녀석들이 죄다 모인 집단이더라고요. 저희는 노는 것이 공부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군대를 갈 즈음에 어떤 키가 작은 후배가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바로 개그맨 이수근이었습니다.

‘교육의 길을 걷다’

레크리에이션과를 졸업하고 동기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체육교사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과학교사에까지 도전을 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교육과는 먼 곳에 있지만 내 몸 속엔 아직도 교육의 피가 흐른다고나 할까요?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도 그리우니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나 방식을 토대로 나의 아들과 딸에게 접목을 시키니 자연스럽게 육아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에 몸을 담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꿈꾸어 오던 나만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죠?

나는 학력고사의 막차와 수능시험의 첫차를 둘 다 타 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역동적인 시기를 몸소 경험하게 된 천연기념물이라 할 수 있죠. 이땅의 수험생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자신이 원해서 가는 거냐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디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뜻 깊고 활기차게 사려면 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탐방기사] 지하철로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장



이제 곧 있으면 아이들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애석하게도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는 달리 갈만한 곳이 한정적이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오히려 한 곳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들과 지하철로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학까지 남은 한 달 여의 시간동안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떠나보도록 하자. 글남양열 기자

① 인천



1호선 인천역 “짜장면 박물관”

인천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난 차이나타운 내에는 짜장면 박물관이 있다. 짜장면 최초 발원지인 공화춘에서 개관한 이색 박물관으로서 인천 화교의 역사를 통해 짜장면 탄생과 변천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 ▶위치: 인천광역시 북성동 1가 38-1번지 (차이나타운로 56-14)
- ▶문의: 032-773-9812
- ▶홈페이지: www.icjgss.or.kr/jajangmyeon/
- ▶주변 가볼만한 곳: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송월동 동화마을, 인천 개항박물관, 아트플랫폼

② 삼성



2호선 삼성역 “코엑스 아쿠아리움”

‘환상적인 물의 여행’이란 주제로 아마조니아월드, 맹그로브와 해변, 오션킹덤 등 1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중환경과 다양한 생물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전시해 놓았다. 3,000톤의 바닷물 속에서 초대형 식인상어와 가오리, 바다거북 등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아쿠아리움
- ▶문의: 02-6002-6200
- ▶홈페이지: www.coexaqua.com/
- ▶주변 가볼만한 곳: 풀무원 김치박물관, 봉은사, 선릉, 정릉, 삼성 어린이박물관

③ 경복궁



3호선 경복궁역 “국립민속 어린이박물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고궁박물관과 더불어 폭넓은 역사체험이 될 수 있다. 옛 추억의 거리와 터치스크린의 현대적인 시설의 조화가 잘 되어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 ▶문의: 02-3704-4540
- ▶홈페이지: www.kidsnfm.go.kr/
- ▶주변 가볼만한 곳: 경복궁, 광화문, 삼성 출판박물관, 사직공원, 서울 시립 어린이도서관

④ 대공원



4호선 대공원역 “국립과천과학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관으로서 즐겁게 탐구하는 살아있는 과학체험 공간이다. 상설전시장외에 옥외전시장, 생태체험학습장, 천문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시품의 절반 이상을 첨단 연출매체를 이용한 체험형, 참여형으로 마련하고 즐기고 느끼며 감동하는 과학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위치: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10 국립과천과학관
- ▶문의: 02-3677-1500
- ▶홈페이지: www.sciencecenter.go.kr/
- ▶주변 가볼만한 곳: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⑤ 광화문



5호선 광화문역 “청와대”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를 아이들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1시, 오후2시, 3시 등 정해진 시간에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녹지원, 옛 경무대, 영빈관 등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으며 관람예약은 필수이다.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문의: 02-730-5800
-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
- ▶주변 가볼만한 곳: 한국 금융사 박물관, 신문 박물관, 영국 문화원, 청계천

⑥ 삼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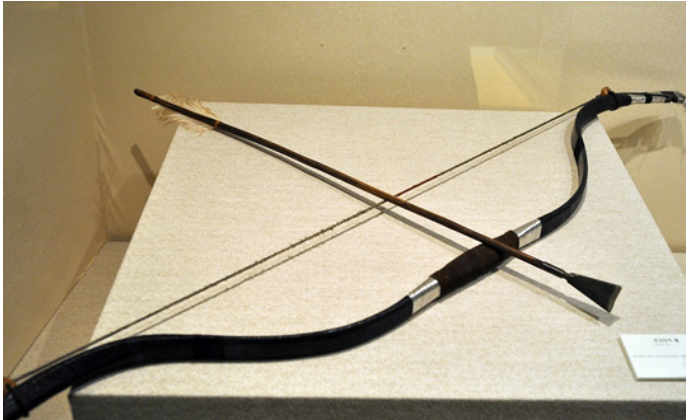


6호선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전쟁의 아픈 상처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관으로서 9,000여 점의 전쟁 관련 기념물로 전시하고 있는 대규모 공간이다. 6개의 전시구역으로 나뉘는 실내 전시장과 더불어 6.25전쟁은 물론 월남전까지 쓰였던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 옥외전시장은 이곳에 백미이다.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 ▶문의: 02-709-3139
- ▶홈페이지: www.warmemo.or.kr/
- ▶주변 가볼만한 곳: 용산가족공원, 새남터 순교 성지, 국립중앙박물관, 효창공원

⑦ 부천종합운동장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활 박물관”

활박물관은 이름 그대로 활을 테마로 설립된 박물관으로서 선사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별 활과 화살, 활을 소재로 한 옛 그림과 활을 쏠 때 사용한 도구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주인공들이 직접 사용했던 활과 화살에 화약이나 불을 달아 쏘던 신기전도 볼 수 있다.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춘의동 8 종합운동장)
- ▶문의: 032-614-2678
- ▶홈페이지: www.bcmuseum.or.kr/
- ▶주변 가볼만한 곳: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옹기박물관

⑧ 석촌



8호선 석촌역 “석촌 백제고분”

석촌호수에서 남쪽으로 500여 미터를 가면 백제고분군이 있다. 삼국이 패권다툼을 할 때 한양을 차지한 백제가 위례성이라 이름지어서 살았고 웅진성 사비성으로 천도하며 멸망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사용했던 칼, 향아리, 각종 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도 볼 수 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 ▶주변 가볼만한 곳: 석촌호수, 방이동고분군, 롯데월드

⑨ 선유도



9호선 선유도역 “선유도 공원”

과거의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이자 물 공원이다. 선유도 일대 11만 4천㎡의 부지에 기존 검물과 어우러진 수질정화원, 환경 물놀이터 등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고, 한강전시관과 시간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토해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을 겸할 수 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당산동 1)
- ▶문의: 02-2634-7250
-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seonyudo
- ▶주변 가볼만한 곳: 여의도공원, 하늘공원, 국회의사당, 63시티

조건없어! 무상이야

무상 복지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필연적으로 무상 복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모두 교육과 연관이 있다. 이 세가지 정책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문제, 경제 양극화 해소, 사회 이동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무상시리즈는 과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 낮추는 것인가, 무상시리즈의 혜택층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경제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 보았다. 앞으로도 무상 시리즈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 ‘그 논리는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른가?’ 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 이희재 기자



	누리과정	무상 급식
제안자 (여야 반응)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야당도 동의)	2010년 지방선거 야당 공약 (박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
내용	3~5세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무료	초등학교부터 장기적으로 중·고교까지 무상 급식 확대
예산 규모	4조원	2조6000억원
반발	진보 성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산 부족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6400억 편 성안 해. 반면 무상 급식비 4100여억원 은 정상 편성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금 320여 억원 지급 중단 선언
확산	진보 교육감들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면 유지 못하겠다" 분 위기 확산	경남도 11개 시·군 무상 급식 지원 거 부 동참 인천·경기도 등으로 무상 급식 예산 지원 거부 확산.

무상급식 - 조금은 성급했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

먼저 무상급식부터 살펴 보자.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40-50 초중고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다. 그들은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복지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를 일치' 시킴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의 권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함께 잘사는 사회, 경제양극화의 해소'에 일조 한다는 부분은 아직도 고개가 가웃 거러진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상담시스템, 방과후 지도 교실 등에 투자될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쓸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내 원어민 교사의 예산을 삭감해 원어민 교사가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영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또한 고등학생들에겐 나름대로 중요한 2014년 9월, 11월 학력 모의평가를 무상급식에 비하면 험값인 고작(?) 십수억원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다고 한다.

공교육이야말로 미래의 경제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데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으로 이미 급식비를 지원 받던 저소득층 아이들은 오히려 그들만의 특혜가 사라진 게 되고 사교육은 꿈도 못 꾸는 형편에 공교육 수준이 낮아지면 결국 가난의 악순환은 계속 되어 질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이 좋아졌을거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상 급식 실행 이후 교내 매점의 매출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 중이다. 무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무상보육- 무한경쟁의 시작은 동일선상에서

무상급식이후 새로 떠오르는 논란의 불씨는 무상 보육이다.

이 논란을 정리해보면 사실 새로울 이유는 그다지 없다. 왜냐하면 이미 2012년부터 시행 되고 있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다 내년에는 아예 없어지게 되자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연합 전선을 만들어 중앙 정부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 찬반 논쟁이 뜨거워졌다. 사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예산부족을 초래 했다고 본다.

2012년 이전에는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각각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 행정, 재정적 낭비와 부처간 갈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립, 이런 다툼등이 양산되어왔다. 그래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만들어 일원화 시키고 예산집행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나누어 집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지원은 끊어지고 시도 교육청에서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 시도 교육청은 자기 관할이 아닌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공여지책을 꺼내든 것이다.

이쯤에서 예산 구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교육청 예산의 70%정도는 경직성 경비이고 나머지 예산 30%중 70%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돌봄교실등 6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이야기는 무상급식 중단하고 누리과정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압박이다. 물론 표면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론은 누리과정이 더 중요한 정책이니 무상급식을 그만 두고 누리과정에 예산을 집중하면 된다는 이야기 나다름없다.

표면적으로는 지방 재정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가 있다는게 너무도 뻔히 보인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현재 어린이 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200만에 육박한다.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기에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라나는 새싹들이 같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반값등록금- 무상공약의 원조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무상 시리즈의 원조격인 반값 등록금을 빼 놓을 수 없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부동산의 1위 미국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70% 이상이 국.공립대임을 가만할 때 국.공립대 비율이 18%인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싼 등록금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 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교에 입학 한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 하고자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도 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2007년 17대 대선때 태어나 8살이 된 지금까지 해마다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몇몇 서울시립대등 지자체의 권한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 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등록금이 싸다 보니 등록금만 내 놓고 학교는 나오지 않는 반수생들이 늘고 부족한 예산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항간에는 박대통령이 선거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박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은 야권이 주장하는(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다른 개념이었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야권의 '반값 등록금'이라면, 박대통령의 반값 등록금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뒤어찌보면 반값등록금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역시 4조원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꾸만 예산, 재원, 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예산 311조원 가운데 불용액이 18조원이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쓰지 않은 돈이 18조원이라는 것이다. 18조원이면 무상시리즈물을 전부 섭렵하고도 6조원이 남는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날림 예산안 처리만 안하더라도 이정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본다.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세금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도 받아야 하는가?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을 돕는 것은 복지의 의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중산층도 납세자이고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아닌,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개인, 특히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의 질은 나빠질 것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자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던 국가들이 파산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한 건 왜일까.

이제 정부와 지자체, 교육감들 어서 정신들 차리시고 힘겨루기 고만 들 두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진짜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아빠의 청춘

이 세상의 부모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헤이)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부라보 부라보 아빠의 인생

세상구경 서울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착한 며느리를 내물라보고
황소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헤이)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부라보 부라보 아빠의 인생



기러기아빠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 새도 슬피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갔나 어디서 살고있나
아아~~~~아아아~~~~아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하늘엔 조각달 강엔 찬바람
제 너머 기적소리 한가로운 밤중에
마을마다 창문마다 등불은 밝은데
엄마는 어이갔나 어디서 살고있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벌써 45년전 1966년 오규택은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황혼의 로맨스를 그린 동명의 영화도 히트하였다. 그 때의 경제 여건이나 정치적 환경들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어쩌면 부모의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교육열로 이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교육열을 사랑으로 포장한 부모 본인의 보상심리로 변질된 부작용도 많았다.

또한 가사처럼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만으로 빌어주는 것”만이 아닌, 직접 몸으로 뛰는 부모들의 행동은 대치동 학원가의 붐, 조기유학 등으로 하나의 큰 시대적 물줄기들을 만들어 냈다.

이 중 대치동 학원가의 붐이 6,70년대의 경기중 등 명문중학교를 보내기 위한 치맛바람의 연장선상이었다면, 조기유학은 조기영어교육의 최종판으로 가족의 생이별과 엄마, 아빠의 외로움과 현실적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

조기유학의 부작용은 한마디로 바로 ‘기러기아빠’로 표현되는 가족의 생이별이다. 기러기아빠의 유래는 1969년 가수 이미자의 노래 ‘기러기아빠’에서 시작된다. 이 노래는 1964년 9월 11일 1차 파병 후 1966년 4월까지 4차에 걸친 박정희 정부 하의 베트남참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기러기아빠’의 가사는 “산새도 슬피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로 시작되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금지곡이었다고 한다. 사실 제목은 ‘기러기아빠’지만, 2절에 ‘기러기엄마’도 찾는 것을 보면, 변화된 2014년 요즘의 상황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기러기아빠’는 우리 사회의 독특하고 새로운 가족형태에서 기인된 용어로 2004년도 새로 출간된 국어사전 「훈민정음」(금성출판사)에서 이 용어가 수록되었다. 그에 의하면 “기러기아빠란,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 놓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남자”라고 정의한다. 또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2005년 1월 9일자에서 ‘Gireugi’라는 용어로 조명 받기도 했다.

과연 기러기아빠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이 만들어 된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긍정적 효과는 기러기아빠가 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포 닷의 이사인 홍진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이고 시설과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2.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다.
3. 내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겠다.
4.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준비를 또 해야 하며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5.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를 그들과 비교하여 열등하게 할 수 없다.
6.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학비가 싸고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
7. 자녀들이 적응을 잘못해 혹시 실패할 수는 있어도 영어는 건질 수 있다.

(출처:미국에서 의사하기블로그 <http://ko.usmlelibrary.com/289>)

그렇지만, 그의 글에서는 여기에 대해 하나 하나 반론을 펴며,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즉 부정적인 효과는 긍정적 효과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한 현실과 대안을 보면 “첫째 조기유학보다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둘째 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학교 때 해외여행을 권하며, 셋째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 넷째 국내의 사립 학교도 잘 선택하여 고르면 좋은 학교가 조기유학보다 더 낫다는 현실. 다섯째 남에게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고 표현하도록 매너교육을 시킨다면 조기유학에서 성공하는 극소수의 아이들보다 더 올바른 사람이 될 거라는 상식, 여섯째 만약 그래도 보낸다면 대학 때 유학을 보내며 미국 내 해당분야 TOP 10에 들어있는 대학교에만 유학을 보내기를 권한다. 일곱째 유학초기에는 언어장벽으로 자신이 외계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잊어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혀 적응을 못해 한국학생들끼리 서로 의지해서 생활하며 영어는 거의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제 ‘기러기아빠’를 가족 전체로 확대해 보자. 이를 비동거 가족이라 부르는데, 비동거 가족은 크게 국내 비동거 가족과 국제적 비동거 가족으로 나뉘어지며 기러기아빠는 국제적 비동거 가족에 해당된다. 거주지역이 국내든 국제든 가족 간의 비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문제는 가족관계 문제나 건강악화, 부부 성관계 등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제적 비동거가족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러기 가족의 이혼 등 가족해체의 정도라든지, 혼자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아빠들의 자살 및 돌연사, 아빠와 자녀간의 문화적 충돌 등 가족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러기아빠들의 문제점으로, 2000년대 초기에는 돌연사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언론의 노출은 2003년 초 매일경제 정원훈의 칼럼 ‘어느 기러기아빠의 죽음’ 때문에 이슈화되었고, 그 후 많은 언론들이 동일한 제목이나 이를 차용하여 언론에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제목으로 ‘아빠의 청춘’이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거라면, 맞고 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빠의 청춘’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 아빠만이 누리는 자유라 해석해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자세를 3단계로 살펴보자.

1단계 현재의 상황이 본인에게 주는 결과를 인식하자.

수원대 차은정교수는 그의 연구에서 “기러기아빠의 경우 외로움과 같은 심리, 정서적 압박, 건강관리상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방금 전 언급한 돌연사의 경우는 사고,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사망,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이 나타났다. 자살률은 일반인과 비교해 2.3배,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률은 4.7배, 심장질환 사망률은 1.7배나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식한 상태여야 그 다음의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동호회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참석하자.

동호회는 취미 일수도 있고, 등산 또는 운동일 수도 있다. 취미가 없다면, 멀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보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다른 곳보다 경제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이 술자리에 노출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외로움을 극복하는 정서적인 안정도 가져올 수 있다.

3단계 운동 및 세끼를 거르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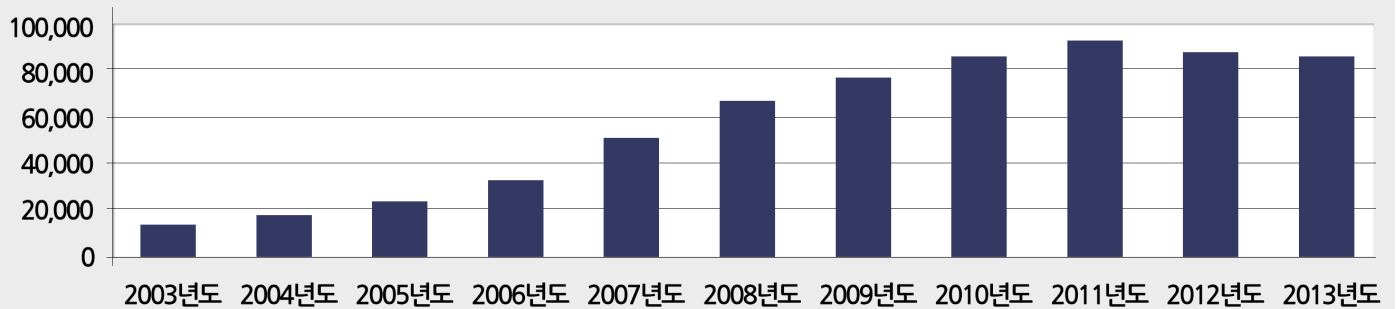
결국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조기유학을 보낸 거라면, 가장인 내가 건강한 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족의 구성원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러기아빠’의 상황에 ‘아빠의 청춘’을 외치는 이유는 영화가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아빠의 청춘’이 황혼의 로맨스를 말했다면, 현재 2014년 ‘기러기아빠’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시기의 극복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아빠인 나는 ‘돈 보내는 기계’가 아닌 ‘가족의 구성원’이며,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힘든 시기를 자존감과 자기관리로 극복하자.

한국에서 유학하기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한국에서 유학하기(www.studyinkorea.go.kr)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학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매일 접속자는 20,000명 정도 되고 동시 접속자수는 1,000명을 상회 하는 수준이다. 20,000명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텐데 잠실 올림픽 실내 체육관에 사람이 가득차면 15,000명이다. 하루에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우고도 5,000명이 남는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유학을 할 리는 없으니 저 숫자는 모두 외국인이 라 할 수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아니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한다가 맞을 것 같다. 특히 중국, 몽골, 베트남 학생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며 2013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의 총 숫자는 50,000명을 넘어섰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자랑하는 한국에 그것도 자비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의 자제 이거나 부유층의 자제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가면 가까운 미래에 자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로 성장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유학을 꿈꾸는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 유학 정보를 찾아 헤메고 있을지 모른다. 코리언저널은 4개국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뻗어나 가는 잡지인 만큼 그들에게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 기사를 준비 했다. 글 앤서니김 기자

인문, 상경 계열 전국 순위	이공, 공학 계열 전국 순위
01. (국립)서울대학교	01.(국립)한국과학기술원
02. 연세대학교(신촌)	02. 서울대학교
03. 고려대학교(안암)	03. 포항공과대학교
04. 서강대학교	04. 연세대학교(신촌)
05. 성균관대학교	05. 고려대학교(안암)
06. 한양대학교	06. 한양대학교(서울)
07. 중앙대학교(서울)	07.(국립)울산과학기술원(UNIST)
08. 경희대학교(서울)	08. 성균관대학교
09. 서울시립대학교	09.(국립)광주과학기술원(GIST)
1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10. 서강대학교

1. 입학절차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학교를 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소위 잘나가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이다.

이공계열에서는 순위가 좀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세 학교 중 고르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듯 싶다. 대학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http://www.studyinkorea.go.kr/>에 접속해 대학정보를 더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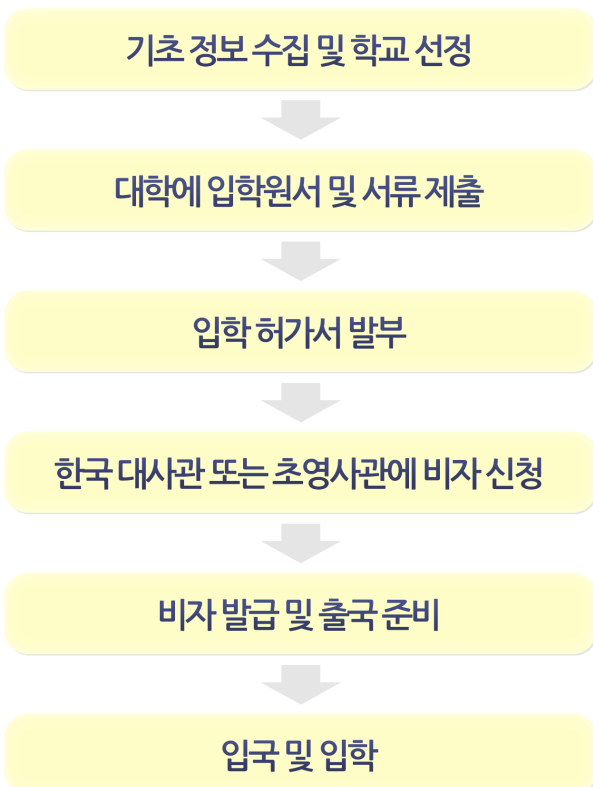
학교를 정했으면 대학에 입학원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에 적합한 스펙을 지니고 있다면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발부 될 것이다.

입학허가를 받았다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D-2 비자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 체류 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어학연수, 또는 한국문화연수 등의 단기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D-4 비자를 신청 해야하고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 수하는 사람,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등이 이에 해당하고 연수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유학 오기 전에 음식, 기후, 의복, 생활 습관, 주거 형태, 문화, 역사, 언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특별 전형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과정에 입학하려면 최소 수학 연한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12년 이상의 초·중·고 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학제가 틀려서 11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1학년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학업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 6개월까지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스펙이 모자라다면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도 있다.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일부를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 채우는 특별 전형이다. 순수외국인 및 12년 이상 외국교육과정 이수 내 국인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은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다.



남이섬에서 초겨울의 고즈넉함을 느끼보자!

북한강 위에 반달모양으로 떠 있는 남이섬은 1944년 청평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섬으로 배를 타야지 들어갈 수 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매년 여름이면 강변가요제가 열렸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외국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남이섬은 조선 세조때 병조판서를 지내다 역적으로 몰려 요절한 남이 장군의 묘가 있어 남이섬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미 고인이 된 수재 민병도 선생이 1965년 불모지인 남이섬을 매입해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남이섬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 남이섬이 "나미나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글 남상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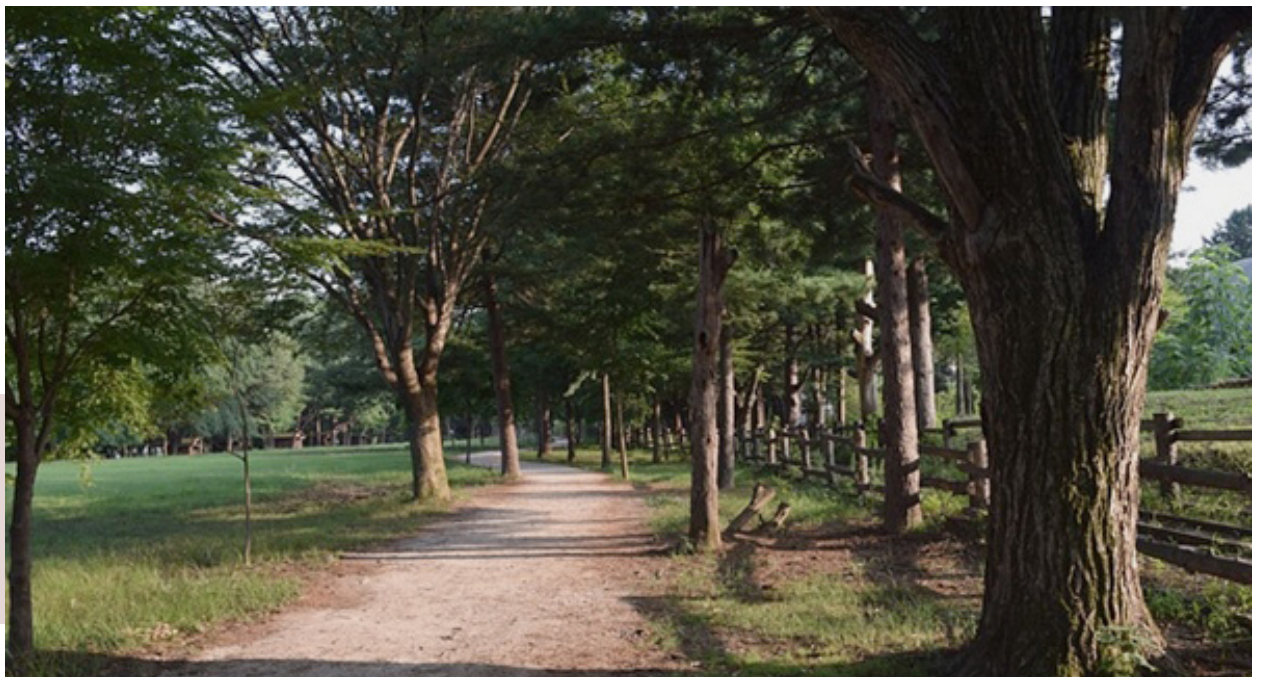


남이섬으로 들어가려면 나미나라공화국 입국비자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비자 발급비는 일반 1만원, 학생 8천원, 어린이 4천원으로 왕복도선료와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유람선을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가자.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북한강의 시원한 강바람을 마주할 수 있다. 남이섬 입구에는 유니세프 나눔열차 승강장이 있다. 나눔열차를 타고 중앙역에서 내려 천천히 남이섬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울연가의 주인공이 걸었던 메타쉐콰이아 길은 남이섬의 랜드마크로 이국적인 멋을 풍기며, 중앙광장의 은행나무 길은 황금색 카펫을 깔아 놓은 듯 환상적인 길을 만들어 준다. 또한 강변을 따라 뻗어 있는 자작나무 길과 갈대 숲길은 초겨울의 고즈넉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가족 혹은 연인과 손을 잡고 걸으며 추억을 만들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듯하다.

남이섬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다. 섬 전체를 둘러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와 하늘 위를 걷는 듯 한 하늘 자전거는 물론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갤러리와 박물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방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하기 때문이다.



남이섬 안에는 아티스트가 직접 꾸민 국립호텔 '정관루'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호텔식, 콘도식, 방갈로식 등 취향에 맞게 선택해 하루를 묵어갈 수 있다. 나 혼자 만이 느낄 수 있는 남이섬의 고즈넉한 밤과 신비로운 새벽 산책은 남이섬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숙박문의는 정관루 대표번호 031-580-8000으로 하면 된다.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

EBS 가족뮤지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간다!
EBS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로 돌아오다!

함께 놀고 즐기고 참여하는 “참여놀이 뮤지컬”로 올 겨울 최고 화제작 EBS미디어가 주최하고, EBS미디어와 (주)애드칸이 공동 제작 방귀꽃을 구하기 위한 뽕뽕이와 친구들의 신나고 재미있는 방귀별여행 EBS가족뮤지컬 “번개맨”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EBS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EBS 대표 캐릭터 ‘방귀대장 뽕뽕이’가 어린이놀이뮤지컬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공연에서는 향기방귀, 버블방귀, 슈퍼방귀까지 다양하고 신기한 방귀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어린이들의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 또한 EBS방송 제작진의 지원,협조를 통하여 공간 및 캐릭터를 완벽히 재현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음악과 율동, 놀이는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고, 신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어린이들보다 3세~7세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이번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의 제작을 맡은 (주)애드칸의 정을석 대표는 “저희 아이가 3살이라서 아이와 함께 어린이 공연을 참 많이 보려다녔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위주의 공연은 영유아 어린이들 기억에 오래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50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지루해 하더라도요. 어린이들의 끝없는 에너지를 함께 발산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번 방귀별 놀이 탐험대입니다. 영유아 어린이들게 잘 보고 왔습니다가 아닌 잘 놀고 왔습니다로 기억될 것 입니다”라며, 놀이뮤지컬에 대한 기대감 나타냈다.

현재 인터파크에서는 11월30일까지 조기예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조금만 서두른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 공연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공연장을 찾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보다 풍성한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될 전망이다.

본공연이 진행되는 CGV신한카드아트홀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물론, 자차이용 고객들을 위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어 쇼핑, 관람, 식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폭넓게 즐길 수 있다.

평일과 일요일은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토요일은 3회(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현재 인터파크 (1544-155)에서 예매중이며 단체관람은 에듀플랜(1661-9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주)애드칸 02-586-0623으로 하면 된다.

[코리아저널 남상열 기자 nam@koreanjournal.net]



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7층에 위치한 CGV신한은행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관람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객석과 무대의 구분을 없앤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노는 신개념 어린이 놀이 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별 놀이 탐험대”는 단연 올 겨울 어린이뮤지컬 최고의 화제작이다.



엘리샤코이 모델 이국주, 뷰티 화보 촬영현장 공개

- '예뻐지는 의리 엘리샤코이x이국주' 메이킹 영상 공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1월 18일 -- 대세녀 이국주의 뷰티 화보 촬영현장을 담은 메이킹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화제다.

이국주를 화장품 모델로 발탁한 화장품 브랜드 '엘리샤코이'는 13일 '예뻐지는 의리 엘리샤코이x이국주' 뷰티 화보 촬영현장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국주는 영상에서 촬영 내내 특유의 귀엽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을 발산했다. 또 여배우의 전유물인 화장품 광고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영상 속 그녀는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와 '호로록'을 국주 쿠션을 이용해 외치기도 하고, 촬영 중간중간 코믹댄스를 추며 촬영장 분위기를 업 시키는 등 촬영장 활력소가 되었다는 후문.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 시즌 5〉 개최로 한류 3.0 엔터테인먼트 시대 열어



- 12월 19일, 한국영화배우협회와 한강세빛섬에서 2014 '스타의 밤' 행사 공동 개최
- 내년 5월 개최되는 '시즌 6'는 네덜란드·프랑스·스위스 및 이탈리아에서 세계 최초 모빌리티 대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1월 16일--올 12월 19일 전 세계 1천만명의 생방송 시청자와 함께 한강 세빛동등섬에서 열리는 '2014년 슈퍼탤런트오브더월드(슈탤) 시즌5'가 한류 3.0 엔터테인먼트 시대를 열게 된다.

드라마 중심의 동아시아 한류를 1.0, 케이팝이 소셜 네트워크의 힘을 입어, 전 세계 속으로 유통되는 웹 2.0 환경의 역동성이 한류 2.0 이라면, 3.0 한류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글로벌 쌍방향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융합콘텐츠이다.

싱가폴과 대한민국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슈탤'은 대한민국의 한류와 전 노키아아시아 태평양 회장으로 노키아에 매년 20조원의 매출을 올린 유주그룹의 토마스 질라쿠스 회장의 자본력 및 네트워크가 합쳐진 매니지먼트사로 글로벌(글로벌과 로컬을 줄인 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디지털 이-커머서 뷰티 혁신 플랫폼으로 새로운 향해를 하고 있다.

올해 12월 슈탤 시즌 5 대회는 (사)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최하고, 싱가포르 STX상장사, '유주그룹', 인디아의 타임즈그룹, 이태리 슬라이드 미디어 그룹, 국내 모다랩 더스타즈콘텐츠가 주관하며 싱가포르 '유페이(YuuPay)' 모바일 페이먼트사와 IAH게임, 태국 샌드박스, 중국 500.com, 터키 부콤빈닷컴 등 유주그룹 협력사가 협찬한다.

한국경제TV K콘테스트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세계결선은 전 세계 30여 주요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164국의 1천만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보이며, 녹화방송은 홍콩 패션원, ATV, 줌티비 등 30여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8개월 여 동안 3천여 번 방영하게 된다.

슈탤조직위의 박성숙 운영위원장은 "올 12월 대회는 글로벌 콘텐츠의 원년으로,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 일정동안 콘텐츠 제작에 모든 역량을 다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유럽 및 중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틴 리드(Matin Reed)가 이끄는 MTV8 라이브팀이 내한하여 프로덕션을 총괄하며, 호주 유명 MC 브리타니 블로머(Brittany Bloomer), 몽고의 니콜 가나(Nicole Ganaa)를 수석 샤프롱(코디네이터)으로 임명하여 전 일정동안 참가자를 통솔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알려졌다.

한편, 2015 슈탤 시즌 6은 2015년 5월 유럽에서 개최하게 된다. 전 세계 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메카인 암스테르담, 파리, 제네바, 밀란에서 예선, 패션쇼, 화보촬영, 유명관광지 홍보 등 각종 콘텐츠 제작을 한 후 이 중 한 도시에서 결선을 한다. 미스 유니버스나 엘리트 모델룩, 갓탤런트, 아메리칸아이돌 등과 로케이션의 융합성에서는 수준이 틀리는 3.0 한류의 포문을 여는 전 세계 최초의 모빌리티 대회로 그 역사를 쓰게 된다.

동아시아인들이 중심으로 서구 패션 메카에서 메이저 이벤트를 하는 삼각 3.0 한류로 이미 2015년 5월 시즌 6 대회의 각국 참가자의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시즌 6 대회의 자국 유치를 위하여 네덜란드의 아이이벤트엔프로덕션사의 대표 리에토 보드자라(Rietoe Boedjarath), 이탈리아 슬라이드그룹의 회장 다비스 파가넬리(Devis Paganelli) 씨 등이 올 12월 19일 슈탤 결선에 참관하여 토마스 질라쿠스 슈탤 회장단과 시즌 6 대회의 최종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된다.

2015년 하반기 개최되는 슈탤의 시즌 7대회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광주, 평창 등을 유치도시로 협의중에 있다.

토이 7집 앨범 '다 카포' 공식 발매, 30대에게 압도적인 인기

- 예약 판매 기간 11일 동안 약 4,036장 판매되며 음반 순위 1위 올라
 - 30대 구매자 비중 70%로 사랑 독차지... 80년생 女, 79년생 男에게 인기
-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1월 18일 -- 뮤지션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 토이의 정규 7집 앨범 '다 카포(Da Capo)'가 오늘 18일 공식 발매를 시작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음반 판매 사이트 예스24(대표 김기호, www.yes24.com)에 따르면, 토이의 정규 7집 앨범은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11일 간의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총 4,036장의 판매 기록을 세우며 뜨거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공식 발매일 하루 전인 17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773장이 판매되어 앨범 발매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또한 공식 발매된 18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700장 가까이 판매되며 음반으로선 기록적인 일일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30대 구매자가 70% 차지, 그 중 80년생 여성에게 가장 사랑 받아

무려 7년 만에 발매되는 토이의 새 앨범 '다 카포(Da Capo)'는 특히 30대의 감수성을 건드리며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다 카포'의 구매자 중 30대 여성이 49.3%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30대 남성도 약 20%를 차지하는 등 30대 구매가 약 70%에 이르렀다. 특히 나이대별 구매 비중에서는 34세 여성이 7.7%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35세가 3%로 가장 많았다.

김혜란 예스24 가요 담당 MD는 "2014년은 그 어느 해보다 30대들의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김동률, 이승환, 이소라, god(지오디) 등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음악들이 많이 회귀했던 해"라며, "토이의 이번 앨범 역시 구매력이 있으면서 문화생활에 적극적인 30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스24에서는 오는 20일까지 토이 7집 앨범 '다 카포'를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토이 친필 사인이 담긴 CD를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음반 홈페이지(www.yes24.com/Mall/Main/Musi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평] 조너선 아이브

“나를 제외하고 회사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상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바로 조너선 아이브(애플의 디자인 총괄 수석 부사장)이다. 외모마저 닮은 두 사람은 애플의 혁신을 이끌었다.

‘내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렀을 정도로 잡스는 조너선을 신임했다. 성격파탄자라는 평가를 받는 잡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잡스의 직원 대부분은 그의 조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천재디자이너는 예외였다. 그는 잡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는 천재적 소수였다.

이 책은 난독증이 있는 영국 아트스쿨 졸업생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가가 된 조너선을 다루었다. 애플 전문가로 통하는 저자 리앤더 카니는 <조너선 아이브: 위대한 디자인 기업 애플을 만든 또 한명의 천재>를 통해 천재 조너선 아이브와 애플을 해부했다. 손재주가 뛰어난 아버지 마이크 아이브는 자신의 작업실에 조니 아이브를 데려와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만들게 했다. 런던의 디자인 컨설팅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브는 애플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이브의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한 애플 측이 그를 스카웃한다.

아이브는 27세에 애플에 의해 스카웃됐다. 애플 프로젝트에 참여한지 4년 만에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 겨우 29세였다. 그는 30대에 이미 세계를 뒤흔든 히트 제품을 만든다. 이후 온갖 디자인 상을 휩쓸고, 2013년 타임지(誌)가 선정한 세계 100인에 꼽힌 인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45세에는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작위를 받았다.

조너선은 자신은 물건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디자인한다고 말할 만큼 천재적인 인물이다. 그는 잡스의 단순화의 신봉자였다. 그는 디자인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단순한 제품을 추구했다.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대표 제품들은 이런 이념에서 탄생했다.

애플의 성공은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변화는 IT에서 제조업체 까지 다양했다. 단순하게 디자인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라는 트렌드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로 트렌드는 변화했다. 바뀌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넘어 감성과 경험이라는 수치화 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영역까지 접근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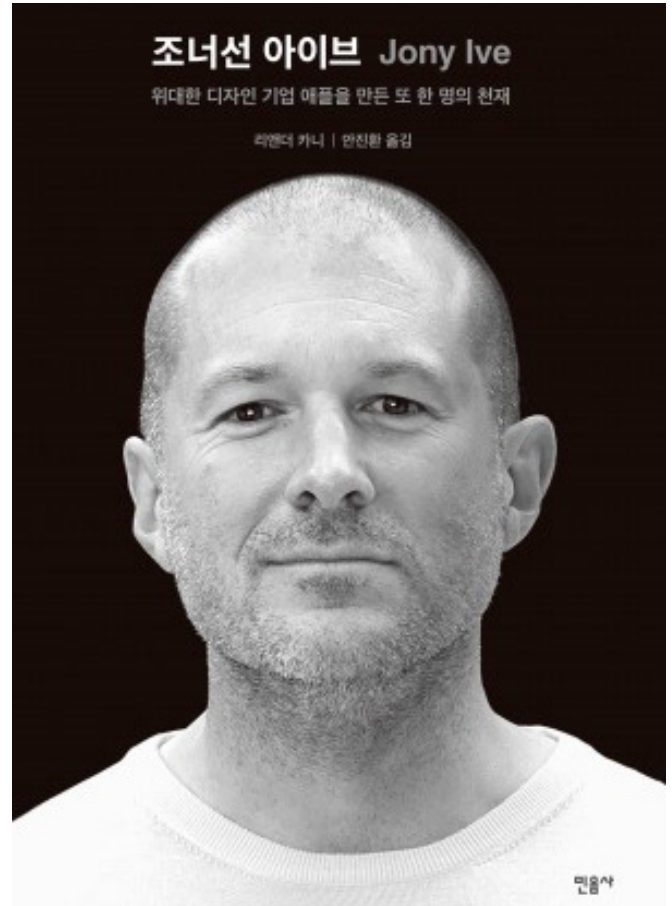
기술을 넘은 직관에 조너선 아이브가 있었다. 그는 잡스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 직관은 무엇인가. 바로 스토리이다.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감성을, 인식을 안겨 줄 것인가 하는 점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으스대며 사용자 위에 군림하려는 제품을 놓고 “아이브는 싫어하고 경계한다”고 표현했다. 사용자에게 친밀하고 정직하게 다가가며 제품 본래 목적에 몰입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브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책에는 답이 있었다.

아이브는 아이디어와 디자인 콘셉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이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다. 그는 명확한 디자인 콘셉트를 전달하기 위해 수백 개의 모형과 시제품을 만드는 열정을 보였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조니와 내가 대부분의 제품들을 구상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 의견을 묻지요.” 잡스의 말이다. 잡스같이 까다로운 상사를 만족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의사소통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너선 아이브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책을 살 필요가 없다. 실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자료조사하면 이 정도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즉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새로운 통찰력은 없는 책이다. 저자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했다면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유명인의 이름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가르쳐 주는 별 볼일 없는 책이다.

글 전성민기자



시장트렌드와 대세론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꽤나 많이 목격한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농부가 어느 날 돈밭이 개발되면서 수백, 수천 억 자산가가 되기도 한다. 요즘 인기가 높은 직장인 KT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던 체신부, 그 중에서도 한직이었던 전신전화국이었으나, 이동통신 시장이 열리면서 해당 직원들은 1등 신랑감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인생역전을 보고 보통 “운이 좋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운 탓만 하고 억울해 하기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점이 하나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세이고 개인의 능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대세를 못 이긴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운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본인이 의도했던 아니건 호의적인 대세를 기가 막히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능력도 현재 그 개인이 속한 대세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증폭되기도, 절감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에도 위와 같은 대세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회사는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도 쉽게 받고 시장과 유저 및 고객의 호응을 쉽게 이끌어낸다. 어떤 회사는 분명히 임직원들도 똑똑하고 매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그 노력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대세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순응했는가를 보며, 이 시장의 대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트렌드인 것이다. 시장 트렌드의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돈이 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리소스가 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들이 어느 방향으로 집중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사업을 할 때에 리소스 분배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대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트렌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적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음을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여행을 간다. 그리고 여행지의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맛에 감탄을 한다. “바로 이거야” 하고 돌아와서는, 왜 그 아이템이 시장에서 통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음식점을 오픈하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그런데 차라리 이 경우는 본인이 반성하기라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시장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팔빙수 가게가 전망이 있다며 오픈을 했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주변에서 하나 둘 점점 팔빙수 가게를 여는 사람이 늘어난다. 방문해보면 손님들도 많고 신문 방송에서도 팔빙수 가게가 인기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본인도 팔빙수 가게를 오픈한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본인은 시장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유행따라하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장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업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패 후에도 본인이 무엇을 간과했는지 복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실수의 예들은 비단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의 벤처사업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장의 큰 맥락에서 아이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별다른 검증없이 사업화하는 벤처들을 의외로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축구 동호회끼리 경기를 하고 싶은데 동호회간 소통할 수 있는 앱이 없으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카카오톡이 대박이 났으니까 우리는 A라는 기능이 추가된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자” 등 표현만 바뀌었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실수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업해야 하는 것은 특히 벤처 사업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커피샵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장사는 오픈 후 당일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현금이 돌아가고 매일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기에 중간 중간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 반면 벤처 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언제 매출이 발생할지 기약없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아이템들이어서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고생만 하다가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벤처는 보유 리소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전략을 설계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Jay Lee

Jay Lee (주)나인독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Texas A&M 경영학석사이다. 솔본인베스트먼트와 코오롱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을 역임 했다. 현재는 벤처기업의 B2C컨설팅과 IT개발 회사인 (주)나인독의 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 카페는 이만큼 모이셨나요?

다스리 카페와 함께하는 2014 크리스마스 파티

만원의 행복

Merry Christmas

Who 다스리 카페 회원이면 누구나!

When 2014.12.19[FRI] PM7:00

Where 투나쇼핑몰 지하1층 모든아이 뷔페
(1호선 송내역 2번출구)

What

1.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의 시간
2. 즐거운 가족 레크리에이션
3. 어메이징 마술 퍼레이드
4. 산타할아버지 우리 카페에 오시네..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5. 맛있는 저녁식사

How

댓글로 참가 신청
(닉네임, 참가인원은 반드시 적어주세요)

<http://cafe.naver.com/sosoevent>